

노인복지를 고려한 고령 농촌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홍찬선 · 임상봉 · 최병숙* · 박선희* · 오찬옥**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A Survey Study on the Improvement Concepts for Community Facilities of Rural Villages Considering Elderly People's Welfare in the Aged Rural Areas

Chansun Hong · SangBong Im · Byung-Sook Choi* · Sun-Hee Park* · Chan-Ohk Oh**

Rural Research Institute, KRC. · *Chonbuk National Univ. College of Human Ecology · **Inje Univ. College of Desig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utility in terms of the elderly's welfare. The data introduced in this paper were collected by the constructed interview method, and 192 aged interviewees were selected from 4 rural areas: Namhae-gun, Uiryong-gun, Imsil-gun, and Sunchang-gun.

From the descriptiv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derived are as follows: 1) The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to remodel rural village community facilities as senior centers. 2) It is expected that the facility be a center for the aged people's living in a village, and that have multiple functions of general care service network, health care, meal support and making friendship spaces for them. 3) Share housing function is also added to the facility in emergency conditions.

Key words : Elderly people's welfare, Senior center, Village hall for the elderl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재까지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론적인 연구들이 추진되어 심층적인 진단과 해석,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 연구 중 농촌지역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노인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¹⁾.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농촌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책추진 단계에서 정책지원의 성공여부는 명확한 정책대상의 설정과 실태파악에 근거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고령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2005년 기준 9.1%이나, 2018년 14.3%로 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5). 이에 따라 빈곤, 소외, 질병, 세대간 부담·수급 불균형의 확대, 생산성저하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는 1999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1.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통계청, 2000),

1) 경로당 마을회관등의 활용 방안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며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박대식 등, 2002, 2004).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정화 등(2005)이 마을회관(경로당)은 거의 모든 마을에 있는 보편적인 시설로, 마을회관(경로당)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정부는 서비스의 이용율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으며 주민의 욕구에 따라 마을공동시설의 건립, 개보수, 운영비와 같은 지원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지면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이 2002년 기준 85개 군 중 23개 군(27%)이었으나, 2003년 기준 30개 군(35%), 2004년 기준 35개 군(41%)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동아일보, 2004.10.2, 2005.10.7). 이러한 현실은 고령화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를 이미 상당부분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농촌에 생활하는 가족의 상당수가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임상봉 등, 2004), 노인의 60%가 단독세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 혼자세대가 21.2%이다(한정자 등, 2002).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이농과 탈농 현상,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의 고령화된 노인을 돌보는 일을 가족적 차원에서 보다 사회적인 복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준비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지역의 복지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²⁾, 사회복지적 대응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적서비스의 공급조차 부족한 현실이다(채현탁, 2006).

현재, 노인복지에서 “Aging in Place”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노령사회의 바람직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복지 모델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Lawler, 2001).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러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물리적인 시설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정화와 한경혜, 2003, 박대식 등, 2004, 이정화 등, 2005, 홍찬선 등, 2005a, 2005b).

한 사례로 경북 문경시 농암면 선곡 1리에서는 인근 지역 50~60명의 농촌마을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식사와 취침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문화일보, 2006.1.26), 이는 마을회관/경로당의 공동시설이 고령화 농촌마을의 노인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2) 도농간의 복지의 불균형은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추진에 기인한다. 농어촌의 재가복지 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17.5%, 주간보호시설이 5.2%, 단기보호시설이 7.6%만 설치되어 있다(홍찬선 등, 2005a). 의료 인프라의 도시집중도는 종합병원 93.6%, 병상수 89.5%, 의료인력 88%로 농촌지역의 복지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농림부,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를 고려하여 마을회관/경로당과 같은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고령 농촌마을에서 마을회관/경로당에 대한 농촌 노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수용 가능한 농촌 노인들의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농촌마을 경로당 설치 현황 및 주민의 복지요구

농촌 마을단위 노인복지 시설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복지시설의 분류³⁾상 여가복지시설에 해당 된다. 우선 군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여가복지시설을 파악하면 표 1과 같다⁴⁾.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군단위 이하 농촌지역에서 설치율이 높았고, 시설당 이용인구도 약 4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까지 파급된 노인 복지 시설(이정화 등, 2005)로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회관은 1개 군당 1개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인휴양소는 매우 저조하였으며, 노인교실

표 1. 군 단위 여가 복지 시설 현황

지역	구분	시설수 (종사자)	시설수÷ 시군구수	시군구 인구수÷ 시설수	
농촌 (군단위)	노인복지회관	31(189명)	0.37	27,013.45	
	경로당	신교	20,322	-	-
		미신교	232	-	-
		계	20,553	247.63	40.74
	노인교실(개수)	113	1.36	7,410.77	
노인휴양소	2	0.02	-		
도시 (자치구)	노인복지회관	97(2,499명)	1.41	15,705.30	
	경로당	신교	8,020	-	-
		미신교	144	-	-
		계	8,174	118.46	186.37
	노인교실(개수)	423	6.13	3,601.45	
노인휴양소	-	-	-		

자료: 2004년 12. 31 주민등록인구 기준, 보건복지부 (2005)

3) 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로 구분한다(노인복지법 제31조).

4) 노인 복지시설 실태를 파악한 문헌자료(보건복지부, 2005)에서 소재 주소지가 도(道)의 군(郡) 단위 이하인 것을 정리하여, 농촌 노인 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은 1개 군당 1개정도의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마을단위에서 농촌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써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고령화에 대응한 적절한 방안으로 여겨진다⁵⁾.

농촌노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를 살펴보면 의료 및 주거 복지 차원에서는 요구는 있으나, 재원 및 이용료상의 문제를 제시하였고(한정자 등, 2002) 복지세 신설(박재복, 2002),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면제, 감면 등을 주장하였다(한정자 등, 2002). 여가복지 차원에서는 노인정의 시설확보, 보수 등의 요구가 있음을 제시하였고(이정화 등, 2004), 사회복지여가시설이 설치된 경우 그 이용이 높았다고 하였다(박경란 등, 2003). 그리고 재가복지 차원에서 상담, 간호,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가정봉사 서비스를 요구하였다(안금순, 2002). 나아가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농촌노인과 알고 지내는 마을주민을 요구하였고(이정화 등, 2004), 더욱 다양한 경로우대서비스를 요구하였다.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농촌주민의 요구를 살펴보면, 농촌 노인 혹은 예비노인들은 주거복지시설은 인지하고 있었고(한정자 등, 2002), 자녀와 따로 거주하길 희망하였다(홍성태, 2001, 김순연, 2002, 조남규, 2003). 주거복지시설의 거주의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와 배우자와 사별을 이유로 거주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박윤호 등, 2003, 이희승, 2004, 임현경, 2004), 기본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었다(송석전, 2003, 이희승, 2004). 따라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주거복지시설은 연령층으로 단순히 그 필요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농촌 노인의 정서와 배우자 사별,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거동 불편 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마을회관/경로당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고령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농촌노인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요구를 근거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채택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노인의 일반적 배경으로 연령, 가족구성 및 경제 상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농촌마을 노인복지시설로써 마을회관 혹은

노인정에 대한 불편사항, 개조요구를 조사하였다. 셋째, 마을회관 혹은 노인정 단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써 공동식사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지역 선정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주거관련 의식은 지역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⁶⁾, 2003년과 2004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노인인구(65세 이상)비가 가장 높은 전국의 1~15순위 지역 중 경남지역과 전북지역을 선정하였다.

읍·면단위 선정단계에서는 1개 군당 노인인구 비율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3개 면단위 선정하였으며, 면단위에서 읍은 일반 면단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읍 단위를 포함하였다. 한편 3개 마을의 선정과정에서는 군단위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단위, 중간 면단위, 가장 낮은 면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⁷⁾.

표 2. 지역별 선정된 조사마을

지역	면단위	조사선정 마을
경남 남해군	서면	서호, 예계, 노구
	상주면	두모, 임촌, 금포
	미조면	항도, 미조, 설리
경남 의령군	남해읍	아산, 양지, 대일현
	공류면	계현, 익구, 경산
	대의면	신전, 심지, 중촌
전북 임실군	부림면	목방, 익구, 경산
	의령읍	중동, 중리, 대산
	신덕면	신흥, 사기, 월성
전북 순창군	관촌면	관촌1구, 신전, 방현
	삼계면	뇌천, 사오, 비룡
	임실읍	상리, 정촌, 하동
전북 순창군	복흥면	동산, 월성, 송정
	유등면	외이, 오교, 책암
	적성면	모산, 울지, 괴정
	순창읍	남계, 사정1, 고성

6) 박윤호 등(2003), 농촌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리모델링 방안 연구의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자료(132명)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주거에 대한 의식은 지역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북, 경남, 전북, 강원지역에 따라 현재 주택의 거주여부, 몸이 불편해 질 경우 현재 주택의 거주 여부,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주거로 이주 의향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Chi-square 값은 8.938(df=9, p=.443), 10.873(df=6, p=.092), 15.626(df=9, p=0.75)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7) 상, 중, 하에 따라 선정한 것은 면단위 노인인구 비율이 상위 75%, 50%, 25%인 것을 선정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서로 비슷한 곳이 선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5) 이정화 등(2005)은 노인활동, 공동체 활동의 장이되는 마을공동시설을 농촌노인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잘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언급했다.

선정된 면단위의 리단위 인구를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은 면단위에 비해 그 변화폭이 더욱 컸다. 면단위에서의 3개 마을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중하 기준을 상위 75%, 50%, 25%의 48개리를 조사마을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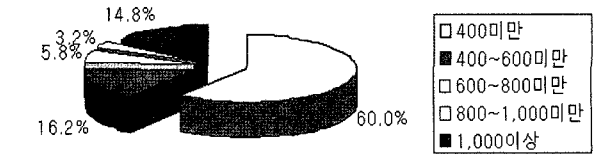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연간 수입.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리 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복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남녀 노인 각각 2명씩 면접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을을 현지 방문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2005. 8. 22~2005. 9. 4 기간 동안 48개 마을에서 19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자료는 조사원이 직접 정리하였고, 자유응답 문항은 전문가가 먼저 유목화한 후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가족은 표 3에서와 같이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형태가 5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 홀로 거주하는 노인단독 가족이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홀로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20사례)는 자녀부부, 자녀부부와 손자녀, 자녀, 손자녀/증손자녀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홀로 노인인 20사례의 경우 모두 배우자와 사별이 그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었다.

III.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 사항

가. 성별, 연령 및 가족 구성

노인의 연령은 71~75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74세(SD=5.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연령은 65세, 최고령자는 88세였다.

나. 경제적 사항

1) 연간 수입

노인의 1년 수입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 7,5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한 155명 노인의 평균 연간 수입은 약 479만원(SD=720.590)으로 파악되었다. 연간 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400만원 미만이 60.0%, 400~600만원 미만이 16.2%, 600~800만원미만이 5.8%, 800~1,000만원 미만이 3.2%, 1,000만원 이상이 14.8%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포 상에서는 400만원 미만의 수입 노인이 많아(60.0%), 노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및 가족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노인	97	50.5
	여자 노인	95	49.5
연령	65세이하	10	5.2
	66 - 70세	44	22.9
	71 - 75세	75	39.1
	76 - 80세	32	16.7
	81 - 85세	22	11.5
	86 - 90세	9	4.7
	기타	1	.5
가족 유형	노인단독	53	27.6
	노인부부	102	53.1
	노인단독+자녀부부	6	3.1
	노인단독+자녀부부+손자녀	8	4.2
	노인단독+자녀(미혼)	4	2.1
	노인단독+손자녀/증손자녀	2	1.0
	노인부부+자녀부부/손자녀	2	1.0
	노인부부+자녀(편부,편모)+손자녀	4	2.1
	노인부부+자녀(미혼)	9	4.7
	노인부부+손자녀/증손자녀	1	.5
	기타	1	.5
계		192	100.0

2) 수입원

조사 노인에게 주된 수입원 3가지를 파악한 결과, 한 가지 이상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수입원 종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사와 자녀의 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원 중 농사가 차지하는 정도가 35.2%, 자녀 보조가 차지하는 정도가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순위에서는 농사의 비중을 48.9%로 언급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소득원은 농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 2, 3 순위 수입원을 모두 생각하면 농사 수입이 자녀의 보조와 거의 같게 언급되었다. 이런 결과는 농촌노인들이 주된 수입의 비중은 농사와 자녀의 보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 연금, 정부보조금 등의 여러 소득원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출원

노인들은 자신의 수입원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지,

우선 순위로 파악한 결과 1순위와 2순위에서 생활비로 지출한다는 의견이 47.1%, 46.1%로 높았다. 그러나 3순위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29.9%로 생활비 비중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노인들이 지출하는 항목 중 생활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료비, 농사관련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수입을 생활비에 소비하고, 소득을 위하여 농사관련 비용에 소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힘든 농사일과 노화로 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 관리에 대한 노인의 비용 부담이 다소 큰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마을회관/경로당의 이용 현황

가. 마을회관/경로당 이용목적

노인들이 마을회관/경로당을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⁸⁾,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니까(28건)가 가장 많은

표 4. 조사대상 노인의 수입원

수입원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사	92	48.9	27	22.5	2	5.6	121	35.2
자녀의 보조	58	30.9	53	44.2	11	30.6	122	35.5
연금	13	6.9	20	16.7	8	22.2	41	11.9
퇴직금	1	.5	1	.8	-	-	2	.6
정부보조금	17	9.0	15	12.5	11	30.6	43	12.5
자영업	4	2.1	1	.8	-	-	5	1.5
품팔이, 잡일	3	1.6	1	.8	2	5.6	6	1.7
기타*	-	-	2	1.7	2	5.6	4	1.2
계	188	100.0	120	100.0	36	100.0	344	100.0

*기타 수입원은 벌어놓은 돈, 저축한 돈, 민박, 임대준 농사수입 등

표 5. 조사대상 노인의 지출원

지출원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활비	90	47.1	76	46.1	13	14.9	167	38.8
의료비	56	29.3	53	32.1	26	29.9	135	31.4
농사관련 비용	33	17.2	28	17.0	15	17.2	76	17.6
경조사비	5	2.6	4	2.4	23	26.4	32	7.4
손자녀/자식에게	4	2.1	3	1.8	7	8.0	14	3.2
기타*	3	1.5	1	.6	3	3.3	7	1.6
계	191	100.0	165	100.0	87	100.0	431	100.0

*기타 지출원은 생활비+의료비, 경조사비+손자녀/자식에게와 같이 중복 응답 경우임.

8)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전 조사에서 노인마다 동일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마을의 대표자 48명에게만 조사하였다.

이유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에서와 같이 상당수의 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심심하니까 노인들끼리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나름대로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놀러, 소일하러, 함께 식사하러, 사람 만나러 등의 이유는 집에 있으면 심심함을 마을회관에서 해결하고자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노인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마을회관/경로당 이용빈도

노인들의 마을회관/경로당 이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노인 중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38.1%였고, 1주일에 3~4번 이용이 24.5%로 노인들이 1주일에 마을회관을 3-4번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62.6%였고, 특히 겨울철의 경우는 15.1%가 더 증가한 77.6%로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마을회관/경로당이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공용 생활공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은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요구에 대응하여 보다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공급 및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마을회관/경로당의 노인 이용 목적

마을회관 이용 목적	빈도	비율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니까	28	40.0
놀러, 소일하러	13	18.6
함께 식사하러	8	11.4
사람 만나러, 혼자 있기 싫어서, 외로워서	8	11.4
우리집 난방 연료비 및 전기세 절약하러	6	8.6
화투, 친목도로, 이야기, 대화	4	5.7
의료기구, 운동, 짚질 사용하러	3	4.3
계	70	100.0

표 7. 마을회관/경로당의 노인 이용빈도

마을회관 이용 빈도	빈도	비율
매 일	41	21.4
거의매일/1주일5-6번	32	16.7
여름, 농번기 제외/ 겨울, 농한기 거의 매일	29	15.1
자주/1주일3-4번	47	24.5
가끔/1주일1-2번	18	9.4
1달에 2-3번	2	1.0
1달에 1번	3	1.6
거의 가지 않음	14	7.3
기 타(자주 안감, 여가날 때)	6	3.1
계	192	100.0

3. 공동이용시설의 불편과 요구

가. 불편한 사항

마을회관/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80명의 내용을 분류한 결과, 시설측면에서의 불편사항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1.3%), 실내 환경의 냉·난방이 26.3%였고, 특히 난방 보다는 겨울철 춥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을 불편함으로 지적하였다(15.0%). 다음으로 공간협소(11.3%),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편(8.8%), 시설물의 낙후(6.3%)를 지적하였다<표 8 참조>.

이러한 불편사항을 통해 볼 때 조사대상 마을회관/경로당의 경우 할머니방 혹은 할아버지방과 같이 공간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동기구나 의료기구 및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집기 등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된 마을회관/경로당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겨울철 비싼 난방비로 노인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마을회관/경로당을 중심으로 난방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체 생활을 이끄는 운영차원의 계획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8. 마을회관/경로당 이용 시 불편사항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시 불편사항		빈도	비율
시설 부족	시설부족(6), 운동기구부족(4), 의료기구 부족/이용불편(3), 방송시설설치(2), 여가시설부족(2)	17	21.3
난방	겨울에 추움(4), 연료비 부족(3), 보일러 고장 잦음(3), 난방문제(2)	12	15.0
냉방	여름에 더움(6), 에어컨 필요(2), 냉방문제(1)	9	11.3
공간 협소	공간이 좁다/2층 증축필요(7), 다용도실 필요(1), 목욕탕(1)	9	11.3
화장실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 불편(3), 화장실 없음(1), 2층에 화장실 없음(1), 수리 필요(비가 새고)	7	8.8
시설 낙후	시설낙후(2), 바닥습기, 수리 필요(비가 새고 부서짐)(1), 수도시설(1), 싱크대 불편(1)	5	6.3
집기 부족	이불부족(1), 소파 필요(1)	3	3.8
접근성	불편한 사람 이용불편(2), 위치불편(1)	3	3.8
비용	관리비/운영비 부족(2), 전기전화비 부담됨(1)	3	3.8
식사	식사문제(1), 식사후 치우기 불편(1)	2	2.5
교제 어려움	대화/귀가 어두워 의사소통(1), 연령차이 큼(1), 용돈잡비 필요(1)	3	3.8
기타	한옥으로 개조, 약속사항 불이행, 별일 없음,	3	3.8

주) N=80

나. 노인 전용공간으로의 개조 요구

조사대상 노인에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조할 경우 주된 이용자를 파악한 결과,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마을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50명(78.1%)이었고,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2명(16.7%), 기타 의견⁹⁾이 10명(5.2%)이었다. 이로써 노인은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주민 공용시설로 인식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을 노인만의 시설로 개조할 경우 그 의견을 파악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주로 과반수의 노인들은 낮 시간에만 공동 사용을 요구하였고(47.1%), 일부 29.6%의 노인은 항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집처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그 외 의견으로는 낮 시간에는 공동사용하고, 일부 노인만 집처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회관을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로 일부 요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마을회관/경로당에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가. 노인의 서비스 지원 요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파악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공동식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요구하였고, 건강관련 의료기구 및 기기의 설치, 운동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화투놀이 및 장기/바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이용 목적<표 6 참조>에서 식사의 지적 빈도가 높지 않았고, 불편사항에서도 크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식사문제가 우선순위 1, 2, 3순위 모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 노인에게 식사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회관/경로당을 계획할 때 음식 준비 및 식사장소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표 9. 마을회관/경로당이 노인만의 공간일 경우의 이용 요구

노인만의 공간일 경우의 이용 요구	빈도	비율
노인이 낮 시간에만 공동 사용	89	47.1
노인들에게 집처럼 밤·낮으로 생활하고 잠도 자게	56	29.6
노인이 낮 시간 공동사용+일부 노인 집처럼 생활	44	23.3
계	189	100.0

9) 다른 마을사람들과 젊은 사람이 함께 이용 혹은 개조 필요없다고 주장함.

이외에 노인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의료기구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함을 암시해 준다.

한편, 농촌 마을회관/경로당의 용도를 고려할 때,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방안 외에,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여가시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경제적 자립이나 보조를 위한 소일거리 마련, 마을봉사기회 제공 등 정보제공 및 계몽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 공동식사 서비스 공간으로의 요구

노인들은 공동식사 서비스를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에서 지원받을 수 있길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체 의견을 파악한 결과, 응답노인의 88.1%가 공동식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의향 있음 42.5%).

표 10. 조사대상 노인이 지적인 필요한 서비스 지원 요구

지원 요구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동)식사, 먹을 것	46	27.4	30	28.0	17	42.5	93	29.5
이야기/대화/담소	28	16.7	7	6.5	1	2.5	36	11.4
친목도모	5	3.0	3	2.8	-	-	8	2.5
의료기구 및 기기	20	11.9	7	6.5	3	7.5	30	9.5
운동기구	13	7.7	16	15.0	1	2.5	30	9.5
화투놀이	7	4.2	8	7.5	5	12.5	20	6.3
오락노래(방), 춤	7	4.2	3	2.8	-	-	10	3.2
찜질방, 샤워장	2	1.2	1	0.9	1	2.5	4	1.3
컴퓨터(교육)	4	2.4	1	0.9	2	5.0	7	2.2
바둑, 장기	6	3.6	11	10.3	3	7.5	20	6.3
노인대학 (교육/강의)	1	0.6	6	5.6	1	2.5	8	2.5
일거리, 부업	4	2.4	3	2.8	2	5.0	9	2.9
빨래 및 세탁(시설)	4	2.4	2	1.9	-	-	6	2.5
잘 놀 수 있게	5	3.0	2	1.9	1	2.5	8	2.5
경제적(돈) 지원	3	1.8	2	1.9	-	-	5	1.6
기타	13	7.7	5	4.7	3	7.5	21	6.7
계	168	100.0	107	100.0	40	100.0	315	100.0

*기타 요구는 여름에 시원 /에어컨(4건), 난방(2건), TV(2건), 잠, 부엌고치기, 냉장고, 공동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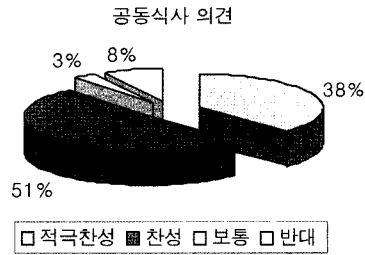


그림 2. 공동식사 의견.

표 11. 공동식사비 부담의향 및 한 끼 식사비

한끼식사비	빈도	백분율
500원미만	11	16.2
500-1000원 미만	9	13.2
1000-1500원 미만	17	25.0
1500-2000원 미만	6	8.8
2000-2500원 미만	14	20.6
2500-3000원 미만	2	2.9
3000-3500원 미만	4	5.9
3500원 이상	5	7.4
계	68	100.0
평균(S.D.)	1461.63 (1109.91)	
최소 - 최대	100 - 5000	

실제 지불 가능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공동식사비의 한 끼 평균 비용은 약 1,460원(SD=1,109원)이었고, 최소 식사비로는 100원, 최대 식사비로는 5,00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식사는 원하되, 비용은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길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 공동동거 서비스공간으로의 요구

마을회관을 일부 집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동거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든 독거노인들의 일시적인 동거공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84.2%로 매우 높았고, 일반 노인들의 동거공간으로의 요구는 56.8%의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 중 87명(44.8%)는 대답을 기피하였고, 응답자 중 31명(16.1%)은 무료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불 의사가 있는 노인 중 월 5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한 응답자가 24명(12.5%)이었다. 이는 공동동거의 의사는 있으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는 의견임을 알 수 있었다.

공동동거 서비스공간을 활용시 인근 마을 노인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수용할 의사가 있는 노인은 52.3%, 반대하는 노인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지역단위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해당

표 12. 공동동거 서비스 공간의 요구

동거공간으로요구	빈도	비율
적극찬성	39	20.3
찬 성	70	36.5
보 통	21	10.9
반 대	59	30.7
매우반대	3	1.6
계	192	100.0

표 13. 병든 독거노인의 일시 동거공간으로 요구

병든 독거노인의 일시 동거공간으로 요구	빈도	비율
적극찬성	61	32.1
찬 성	99	52.1
보 통	9	4.7
반 대	20	10.5
매우반대	1	.5
계	190	100.0

지역 주민들에게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타 지역 거주 노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을단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면단위, 군단위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제일주의 의식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마을단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은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수발공간으로 활용의사

많은 노인이 마을회관/경로당을 독거노인이 아플 경우 입원하여 치르나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혼자 사는 노인이 아플 때 마을회관/경로당으로 이동시켜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돌보아주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 32.1%, '찬성' 52.1%로 총 8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자에 대해서는 36.4%의 노인이 '마을 사람'이라고 하였고, 27.2%가 '전문가'라고 하였으며 7.1%만이 '외지인'이라고 하였다. 수발자로서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61.4%가 부녀회라고 하여 노인 돌보기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14. 인근마을 노인의 마을회관/경로당 동거

인근마을 노인의 사용	빈도	비율
찬 성	90	52.3
반 대	82	47.7
계	172	100.0

표 15. 혼자 사는 노인 아플 때 마을회관/경로당 이동 일시 거주

건강악화 노인의 마을회관/경로당 거주	빈도	비율
적극찬성	61	32.1
찬 성	99	52.1
보 통	9	4.7
반 대	20	10.5
매우반대	1	0.5
계	190	100.0

표 16. 수발자로서의 마을주민

마을주민 중 수발자	빈도	백분율
청년회	10	11.4
부녀회	54	61.4
이장	4	4.5
기타	17	19.3
청년회 + 부녀회	1	1.1
부녀회 + 이장	2	2.3
계	88	100.0

이러한 결과는 농촌사회에서 노인 돌보기는 부녀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 부녀회는 '노인의 특성 및 돌보기' 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을 주민의 수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지인의 수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2.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찬성 58.4% + 적극찬성 13.9%). 이러한 결과는 노인 돌보기가 초고령화 된 마을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마을주민에 의한 수발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마을단위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수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5. 종합 및 활용방안

노인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농촌 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농촌마을의 마을회관/경로당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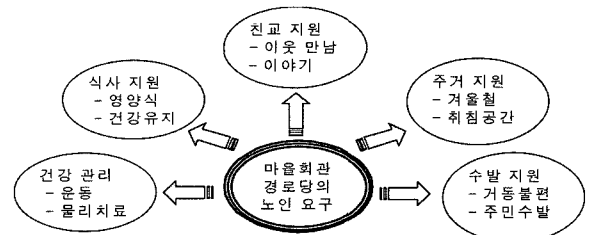


그림 3. 노인 요구를 고려한 마을회관/경로당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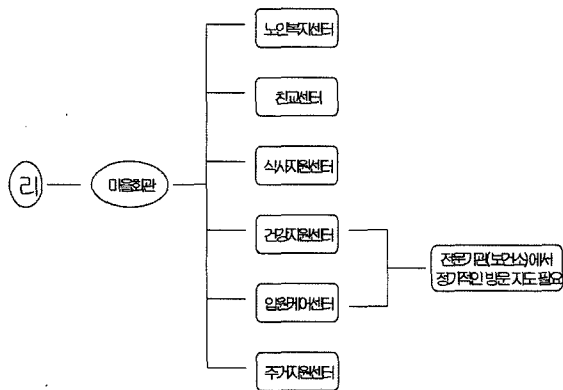


그림 4. 마을회관/경로당 활용방향.

농촌 노인의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실태와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활용 방향을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IV. 결 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농촌마을의 대표적인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생활의 장이며, 특히 심심한 노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현실로 볼 때 이곳은 노인들의 놀이터로서 마을 내 구심점을 형성하는 장소적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향후 농촌사회가 더욱 고령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상황을 대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회관/경로당의 활용 방향을 논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구심적 기능의 유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마을 내 복지센터로서 마을회관(경로당)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으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표 6의 이용목적과 표 10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심심하지 않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오락, 교육 등 정기적인 소프트웨어의 지원 프로그램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곧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건강과 식사 지원 센터로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농촌 노인의 건강과 영양관리 차원에서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기능으로써 마을단위에서 지원 가능한 의료 및 운동시설의 요구가 높았고, 공동식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경로당)의 현실은 단순히 노

인이 모여 몇 가지 운동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차원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나름대로 친목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고령화 사회 대비 관점에서 볼 때는 노인의 건강과 영양을 유지해 나가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대로 된 관리 하에 서비스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복지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경로당)은 친목도모뿐 아니라 건강과 영양·식사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관리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의 상황적 대비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센터로 활용이 필요하다. 노인단독 혹은 부부가족이 조사대상의 80.1%를 감안하고, 배우자의 사망을 대비하면 노인이 혼자서 심심하고 외로운 상황은 언제든지 도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공동으로 동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볼 때,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공동적인 일상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독신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돌보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현실에서 마을회관(경로당)을 이를 대비하는 공간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인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차원에서 동거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동거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재정적 운영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노인들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세 절약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마을회관 난방비 부족의 문제제기<표 10>는 일부 동거 요구를 반영해 볼 때, 그 운영비의 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마을회관(경로당)의 방향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지원이 인구대비사업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로 볼 때,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와는 달리 인구집중도가 낮으므로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농촌노인의 복지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문제는 농촌지역에 맞는 현실을 고려 인구대비의 개념보다는 마을단위의 개념으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농림부 지원으로 2005년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며, 2005년 한일농촌계획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1. 김순연, 2002,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예비노인층의 요구와 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농림부 · 미디어리서치, 2004,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3. 농림부,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4. 박경란, 오찬욱, 조현, 김희년, 김진홍, 2003, 지역사회 노인서비스 연구, 진영문화사
5. 박대식, 정기환, 최경환, 허장, 조홍식, 남기철, 2002,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박대식, 정명채, 송미령, 심재만, 조홍식, 최준렬, 2004, 농산어촌 복지 · 교육 ·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농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박윤희, 최병숙, 이상문, 진미윤, 전영미, 채철균, 김진화, 오민근, 2003, 농촌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8. 박재복, 2002, 노인주거정책 재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송석전, 2003,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11. 안금순, 2002,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인철, 2003,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3.7월호
13. 이재범, 2004,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서비스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정화, 강경하, 정남수, 박공주, 윤순덕, 2005, 농촌노인의 마을 공동시설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농촌계획 11(3) : 19-27
15. 이정화, 박공주, 윤순덕, 200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농업과학기술원 연구보고
16. 이정화, 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 209-238
17. 이희승, 2004, 농촌지역 노인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임상봉, 홍찬선, 한경수, 이한성, 유상건, 2004,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소득원개발사업 추진성과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2),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9. 임현경, 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공주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조남규, 2003,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
22. 통계청, 2005,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3. 한정자, 한혜경, 모선희, 유성호, 김향희,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 한국여성개발원
24. 채현탁, 2006, 농촌지역 독거노인 사회적 지지방 강화 방안, 사회복지정책 24 : 225-256
25. 홍성태, 2001,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강릉시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경영 ·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홍찬선, 임상봉, 한경수, 전택기, 최병숙, 오찬욱, 박정란, 박선희, 2005a,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케어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1),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7. 홍찬선, 최병숙, 박선희, 박정란, 오찬욱, 전병관, 2005b, 노인복지를 고려한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2005 KSRP/RPA International Symposium on Rural Amenity
28. 동아일보, 2004. 10. 2, 30개 군지역 '초고령사회'진입
29. 동아일보, 2005.10.7, 35개군 이미 "초고령사회"
30. 문화일보, 2006.1.26, 뛰는 기름값 무서워...마을회관서 먹고 자고
31. K. Lawler, 2001, Aging in Place Coordinating Housing and Health Care Provision for America's Growing Elderly Population, NRC and JCHS